

송악산 일대 개발제한 토지 전량 매입 추진

송악산 일대 개발제한 토지 전량 매입 추진

송악산 일대 개발제한 토지 전량 매입 추진

제주자치도가 전입 원희룡 도정 당시 발표한 '송악산 일대' 후속 조치로 송악산 일대 중국계 개발회사가 소유한 토지를 모두 매입하기로 했다. 제주자치도는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일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 투자자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소유한 토지 전체를 매입한다고 8일 밝혔다. 매입 대상 토지는 신해원이 송악산 일대에 보유한 토지로 170필지·40만여㎡에 이른다. 매입대상 토지 중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등이 111필지·20만 5252㎡(51.2%), 도립공원에 속한 지역이 72필지·19만 5496㎡(48.8%)를 차지한다. 토지 매입대금은 감정평가가 이뤄져야 나올 것으로 보이며 2021년

송악산 일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 투자자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소유한 토지 전체를 매입한다고 8일 밝혔다. 매입 대상 토지는 신해원이 송악산 일대에 보유한 토지로 170필지·40만여㎡에 이른다. 매입대상 토지 중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등이 111필지·20만 5252㎡(51.2%), 도립공원에 속한 지역이 72필지·19만 5496㎡(48.8%)를 차지한다. 토지 매입대금은 감정평가가 이뤄져야 나올 것으로 보이며 2021년



제주자치도가 '송악산 일대' 후속 조치로 중국계 개발회사 소유 토지를 매입기로 했다. 연합뉴스

중국계 자본인 신해원은 지난 2013년부터 3700여원을 들여 송악산 유원지에 호텔과 캠핑장 조각공원 등을 갖춘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난 2020년 10월 전입 원희룡 지사가 난개발을 제한하는 내용의 송악산 일대 개발제한지구 지정안을 발표했다. 제주자치도가 후속조치로 지난 7월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일대 옛 송악산 유원지 부지 19만 1950㎡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한 후 8월에는 지난 1995년 결정된 유원지 지정이 취소됐다. 이로 인해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

려가 되자 신해원은 지난 10월 제주자치도를 상대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8월 이후 신해원과 4차례 협상을 진행, 송악산 유원지 토지 매매를 위한 기본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제주도의회와 매입 합의서를 승인하면 계약서 체결 후 내년 12월 이전에 매매계약 금액의 30%를 지불하고 2024년 말까지 나머지 금액을 전액 지급하기로 합의했

제주시 공무원 10명 중 1명 '휴직중'

8월 기준 정원 1718명 중 202명 공백 만성 인력난

제주시가 급증하는 공무원들의 장기휴직으로 부서마다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제주시가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집계한 정규직 공무원 중 휴직자는 202명에 이르고 있다.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는 육아휴직이 143명으로 가장 많고 질병휴직 48명, 간병휴직 8명, 병역휴직 등 기타 3명 등이다. 이는 제주시 정규직 공무원 정원 1718명의 11.7%에 이르는 수치로 10명 중 1명 이상의 자리가 비어있는 상태다.

여기에 30일 이상 장기병가중 공직자 11명을 포함할 경우 빈 자리는 더 늘어나면서 인력난이 만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시는 읍면동 근무자와 격무부서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근무성적평정시 경력평정 가점 부여, 수당급 30% 이상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에 현장인력 증원을 요청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과 맞물리면서 복지 담당 인력을 중심으로 22명이 반영되는 데 그쳤다.



계묘년 첫날 500명 겨울바다로 '풍덩'

국제펜귄 수영대회... 도민·관광객 3000명 참가

새해 첫날, 제주바다를 장식했던 국제펜귄 수영대회가 3년 만에 화려하게 복귀한다. >>사진 제주시는 계묘년 새해 첫 날인 2023년 1월 1일,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 '제24회 서귀포겨울바다 국제펜귄 수영대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제주시가 주최하고 (사)서귀포시관광협회(회장 양광순)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정상 개최되면서 관광객과 도민 등 3000여명이 행사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사의 백미인 '겨울바다 펜귄수영' 입수는 낮 12시 15분부터 30분간 이뤄진다. 외국인 100여명을 비롯해 500명이 바닷물로 한겨번에

뛰어드는 장관을 연출할 전망이다. 입수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주어진다. 입수 참가 희망자는 오는 29일까지 서귀포시관광협회의 홈페이지(www.jejusta.or.kr)를 통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 올해 행사는 3년 만에 열리는 만큼 사전 이벤트도 풍성하다. 오전 10시부터 해군악대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펜귄 이어달리기, 어린이 행운 거북알 찾기, 펜귄 팔씨름왕·씨름왕 선발대회 등이 차례롭게 펼쳐진다. 색달마을회는 따뜻한 팔죽과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주최 측은 푸짐한 경품행사도 마련한다.

서귀포시, 한부모가족 오영훈 지사, 긍정평가 하락폭 전국 최고

중·고생 학용품비 지원

서귀포시가 가계가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학용품 구입비를 추가 지원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서귀포지역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은 828가구·2114명이다. 이 가운데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은 82가구·87명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8% 이하(4인가구 기준 297만원)인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다. 다만 기초생활보장법상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교육 지원을 받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액은 570만원으로 1인당 8만 300원이며, 지역 내 지원 대상자는 67명이다.

오영훈 지사, 긍정평가 하락폭 전국 최고

리얼미터 11월 광역자치단체장 평가 결과 오 지사 49.0%... 전달에 비해 3.7%p 하락 김광수 교육감, 상승폭·긍정평가 전국 1위

국립 17개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긍정평가 하락폭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만7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25일부터 31일, 11월 24일부터 12월1일까지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에 대해 물은 결과 오영훈 지사는 49.0%를 얻어 전달 52.7% 보다 3.7%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전체 긍정평가 평균 52.0%에 못미치는 결과다. 또 오영훈 지사의 긍정평가가 하

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39.1%로 지난달(37.0%) 대비 2.1%p 상승했다. 이밖에 긍정평가가 한달 전보다 늘어난 단체장은 ▷전북 김관영 지사(+5.2%p, 56.5%) ▷광주 강기정 시장(+3.2%p, 50.5%) ▷경남 박완수 지사(+1.5%p, 50.6%) ▷대구 홍준표 시장(+1.0%p, 57.8%) 등 이며 울산 김두겸 시장(59.0%)은 전달과 변동이 없었다. 교육감 긍정평가에서는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전월 대비 4.4%p 상승해 59.6%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교육감 중 전월 대비 상승폭이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미늘·더덕 씹음병, 균핵병 예방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연작장애 토양 속도 살균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이모효과 높은 저항성

오래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달팽이추출물 핵심물질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량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방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호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펠릭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과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GA 얇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함

악소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켜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용량 : 20kg

NEVER D.M 코코리 검색

농가작업인부 지원(과수원 발작업)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최신 감귤 묘목 생산 전문업체

국내육성

전망 좋은 신종품 감귤 만감류등 각종묘목을 선별하여 최상의 상품을 공급해 드립니다.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 윈터프린스 차별화된 맛과향, 껍질 벗김이 쉬워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만감류. 연내수확 가능한 만감류 과일시장의 새로운강자!
- 탐나는봉 미국에도 2019년 식물특허 등록원료 색상이 진하고 당당량이 높고 식감이 우수. 기존 한라봉(부자호)보다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리 품종.
- 사라향 껍질 표면이 매끈하면서 두께가 얇으며 기존 천혜향보다 과육 밀도가 높으며, 2월 중후반 성숙하며 과실이 풍부하면서 고유의 향기가 있음.
- 하레조생 조숙 온주밀감으로 기존 공천조생보다 같은 시기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아 11월 고품질 감귤을 생산 출하할 수 있는 품종.
- 제라몬 함량 및 높아 향기가 진한 레몬 품종 내한성이상대적으로 강한 절로 평가되는 품종.
- 미니향 소과형(30g내외) 감귤로 당도가 매우 높으며, 기존 품종과는 차별화된 고품질 품종.

과수농가 보급품종(1.3년생)

-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공천, 흥진, 키라향, 산화향(흰색 감귤)

가정원예(조경수)(2-7년생)

- 하늘, 팔삭, 세미늘, 금귤, 당유자, 아미나스, 미니로, 국내산 행사묘목 판매(신규 10년~2023)

제주한라농원 감귤류묘목 전시판매장 개장! 사전예약 주문생산

제주한라농원은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이며, 우수신품종을 농촌진흥청 국유품종보호(통상실시권)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판매하는 종묘전문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 010-4736-2479 / 010-6500-2329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제주시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